제15회 제주포럼 대주제

아시아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인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협력추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지만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개별 국가들에 의한 자기 이익 추구는 때때로 다자협력을 훼손하고 이로 인하여 인류 공동체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곤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협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이며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이러한 협력 정신은 때때로 쉽게 약해지기도 한다.

일방주의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협력 정신을 지키기 위해 인류는 다자간 협력을 제도 화하면서 인류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다자 협력 메커니즘과 제도들을 구축해 왔다. 유엔(UN)은 바로 이러한 매커니즘과 제도의 가장 중요한 사례이다.

유엔을 포함한 여러 다자 기구들은 전 세계의 안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해 왔으나 최근 일부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다자협력의 정신이 약화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환경, 기후변화, 무역, 테러 등의 국제 사회 공동의 과제들은 점차 도외시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근 국제무대에서 다자협력 정신은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및 거래주의에 기반을 둔 자국 우선주의에의해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강대국 간의 경쟁은 곳곳에 경제 및 정치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지역 국가 간의 갈등도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나아가 북한 핵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다자협력은 필수적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제 사회의 자국 우선주의 물결을 다자협력주의로 바꾸어 나가지 못한다면 인류 역사는 퇴보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제15회 제주포럼은 아시아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Reinven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in Asia')이라는 주제로 아시아의 다자협력을 증진하고 새로운 구상을 찾아내기 위한 담론의 장이 될 것이다. 저명한 세계 지도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 각계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에서 다자주의를 재구축할 방법들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